

制를 어떻게 權力構造를 해결할 것이냐 이 문제 때문에 創黨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문제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全黨大會 附帶條件 밑에서 選舉를 치르고 나서 權力構造를 다시 논의하고 憲法問題를 진지하게 다루자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選舉後에 우리 新民黨에서 진지하게 그 憲法을 다루지 못하고 東橋洞 上道洞 派閥이 나누어져가지고 그냥 답새는 바람에 直選制 直選制 바람에 진짜 걱정해야 할 憲法의 기타 여러 중요한 부분과 동시에 權力構造問題를 다루지를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新民黨에서 낸 憲法도 3次 共和國의 憲法이 大統領은 重任하기로 했어 1次에 한해서 重任하기로...

30年間 20年間 經綸있는 指導者들이 政治를 맡아가지고 잘 하면 國民의 審判을 받아가지고 1次에 한해서 重任할 수도 있어!

이러한 주장을 냈는데 어느 새에 지금 그랬던 野黨 지금 民主黨과 民正黨이 한 번씩 나누어서 하자는 그런 격으로 5年制 單任制로만 바꾼 것뿐이지 다른 것은 發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大統領直選制가 魅力的이고 꼭 바람을 일으키는데 바람政治하는데 답새는 데는 꼭 效果的인 魔力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그 동안에 40年 憲政 누더가에서 가장 시달린 것이 1人體制 大統領獨裁體制 靑瓦臺政治 이것을 어떻게 拂拭해야 할 것이냐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충분히 論議를 못하고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아까 序頭에 말한바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9次 憲法을 改正하지만 벌써 이 문제를 완전히 인식하고 여기에 대한 對備를 할 能力을 우리가 政治·文化의 力量을 가지지 못할 것 같으면 곧 이어서 10次 改憲論爭이 벌어지지 않는다고 누가 保障할 수 있겠습니까?

大統領 1人을 위한 裝飾品에 40年 大統領政治에 있어서 獨裁에 시달렸던 과거의 經驗을 반추해볼 때 政黨 立法 司法府등 牽制機構가 한낱 大統領 1人을 위한 裝飾品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行政府의 勢力과 立法府의 勢力이 均衡을 못하였을 때 그 衝突이 일어

났을 때에 憲政의 膠着狀態를 무엇으로 打開할 것인가 無責任한 公約 濫發과 地域感情의 誘發 數千億이 넘는 選舉資金 撒布 그것으로 인해서 選舉後의 經濟的 社會的 混亂 中傷 謀略등 바람政治·싸늘이 政治風土를 어떻게 拂拭시킬 수 있는가 하는 것이 가장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政黨政治와 責任政治가 구현되고 政治的 進步와 保守가 國家를 위하여 相互 調和와 均衡을 이룰 수 있는 議院內閣制가 우리 現實에는 더 合當할 것이라는 多數의 意見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直選制만이 正當性을 가진다 直選制가 아니면 民主化라고 할 수가 없다 하는 이런 強迫的인 반쪽 論理로 우리가 싸우다가 흩어지다가 12代國會는 오늘날 마침내 저물고 말았습니다.

이번 改憲案을 보면 投票者 過半數 以上の 支持를 얻지 않아도 大統領이 될 수 있습니다.

與野 政治人들의 政權놀이의 計算된 一致로서의 合意된 것인가는 몰라그러되 지금 우리가 보듯이 大統領候補가 4巴戰 혹은 5巴戰이 될 수가 모릅시다마는 이러한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누구도 20%에서 30%정도의 支持밖에 얻을 수 밖에 없다는 算術的인 結論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過半數의 缺如는 少數의 意思가 多數 過半數를 얻지 못할 때에 少數의 意思가 多數를 支配 또는 統治하는 것으로서 이는 必死的으로 多數의 抵抗과 排戰에 부딪히게 되어 政府의 無氣力과 政治·社會의 不安 國家發展의 저해를 초래할 때에 直選制 正當性을 무엇으로 辯明할 수가 있겠습니까? 요즈음에 軍政終熄이라는 口號를 내걸읍시다 軍政終熄... 그것도 필요하지요. 그렇지만 獨裁終熄은 어떻습니까? 獨裁終熄에 대한 口號도 더 優先的이 아니겠느냐 이 사람은 그렇게 믿어 마지않는 것입니다.

直選制와 宿命的으로 연결된 大統領中心制는 勝者 獨善으로 專制를 낳았고 그 專制는 生死決斷을 요구하는 革命的인 抵抗을 유발했으며 그 惡循環속에서 우리 民主主義는 죽어가야 했고 오늘날 이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第137回國會 國會本會議會議錄 第5號

大韓民國國會事務處

1987年10月12日(月) 午後 2時

議事日程(第5次本會議)

1. 大韓民國憲法改正案

附議된案件

- 1. 大韓民國憲法改正案(李大淳議員 金鉉圭議員 鄭在原議員 梁正圭議員外 260人 發議).....1面

(14時22分 開議)

○議長 李載滯 議席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곧 會議을 開催하겠으니 議席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5次 本會議을 開議하겠읍니다.

먼저 議事局長으로부터 報告가 있겠읍니다.

○議事局長 陳在勳 報告를 드리겠읍니다.

(報告事項은 끝에 실음)

- 1. 大韓民國憲法改正案(李大淳議員 金鉉圭議員 鄭在原議員 梁正圭議員外 260人 發議)

(14時25分)

○議長 李載滯 議事日程 第1項 大韓民國憲法改正案을 上程합니다.

이 憲法改正案은 지난 9月18日 李大淳議員 金鉉圭議員 鄭在原議員 梁正圭議員外 260人으로부터 發議 提案되어 同月21日 大統領이 이를 公告하고 20日의 期限이 經過됨에 따라 오늘 本會議에 上程하게 되었읍니다.

그러면 發議者를 代表하여 蔡汝植議員이 나와서 說明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蔡汝植議員 蔡汝植議員입니다.

지난 39年間의 길지않은 우리 憲政史에 있어서 그 동안 여덟차례에 걸쳐 點綴되어 온 執權延長手段이나 政治的 變革에 따라 이루어진 改憲과는 달리 國民의 輿望에 부응하는 憲法을 마련하고자 우리나라 政治史에 처음으로 與野合意에 의해 發議 提案된 第9次 憲法改正案에 대하여 提案說明을 드리게 된 것을 대단한 榮光으로 생각합니다.

여러 議員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이 憲法改正案은 第12代 國會議員 總選後 提起된 改憲問題에 관한 與野間의 葛藤과 對立을 止揚하고 政局의 安定을 위해서 國民 各界各層의 意見을 收斂하여 國民의 輿望에 따른 與野合意에 의한 憲法改正案을 마련하고자 지난 1986年6月24日 本會議 決議에 의하여 構成된 國會議法改正特別委員會에서 그 동안 各 政黨間에 이루어진 改憲要綱에 관한 合意內容을 土臺로 하여 起草 成案한 憲法改正案을 지난 9月18日 與野議員 거의 모두인 民主正義黨의 李大淳議員 統一民主黨의 金鉉圭議員 新韓民主黨의 鄭在原議員 한국국민당의 梁正圭議員外 260人이 現行憲法 第129條第1項에 의거 發議 提案하여 지난 9月21日 大統領에 의해 公告되고 20日이상의 公告期間을 거쳐 國會議決節次를 밟기 위하여 오늘 國會 本會議에 上程된 것입니다.

지난 第12代 國會議員 總選이후 우리 社會는 改憲問題를 둘러싸고 與野間의 不信과 葛藤 그리고 尖銳化한 政治的 對立으로 심한 國論分裂과 社會的 混亂을 거듭하기도 하였으나 마침내 國民大和合을 이룩하여 우리 歷史上 처음으로 與野 合意에 의한 大統領直選制의 憲法改正案을 提案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與野議員은 지난 39年間 겪은 憲政史的 敎訓을 거울삼고 우리 國民의 創意와 勤勉으로 이룩한 經濟成長과 더불어 꾸준히 變化 成熟되어 온 國民의 民主力량과 多樣化된 民意를 폭넓게 受容해서 大韓民國 憲